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들

12 "그때 우리가 빼앗은 그 땅은 내가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 결의 북쪽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들이었다. 13 길르앗의 나머지 절반과 옥의 왕국이었던 바산 전역은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에 있는 아르곱 전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4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이 그술 사람들과 마야갓 사람들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역을 갖게 돼 그 땅의 이름을 자기 이름인 야일을 따서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바산을 하봇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 그리고 내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다. 16 그러나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내려가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는 곳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가 경계가 되는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인 압북 강까지의 영토를 주었다. 17 그 서쪽 경계는 아라바의 요단 강인데 긴네렛에서 비스가 산비탈 아래의 아라바 바닷가, 곧 염해까지이다.

앞서 건너가 싸워야 함

18 내가 그때 너희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야 한다. 19 그러나 너희에게 가축들이 많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성들에 머물러 있게 하라. 20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실 때까지 말이다. 그들 또한 요단 강 건너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소유하게 된 땅으로 돌아가라.'" 21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 주실 것이다. 22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3 묵상하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점령한 요단 동편 땅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특권을 받은 만큼 이들은 정복전쟁이 시작될 때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야 했고, 싸움이 다 끝나야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 한 사람도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백성 모두가 한 하나님 아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욱 힘써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 있게 확장됩니다.

4 적용하기

올로(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강조하는 이 말은 점점 심해져가는 개인주의 세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만큼 먼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은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섬기고 세우며 함께 걸어갈 때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확장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도구로 내가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입장, 내 감정을 앞세우며 공동체를 갈등하게 만들기보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저 혼자만을 생각하던 신앙에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성숙되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모세의 간구

23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24 '여호와 하나님이지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25 내가 가서 요단 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26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27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네가 이 요단 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28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네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29 그리하여 우리는 벳브올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3 묵상하기

간절히 바라며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그 일의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고 나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실하게 이끈 수고를 생각한다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를 이끌 새 리더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어리고 약해보여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며 모세가 경험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27절). 그가 할 일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은 끝까지 자기 손에 쥘 것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수고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이 거두더라도 이미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만으로 기꺼이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께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사는 증거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하나님께 기도 드렸지만 응답이 없거나 좌절되어 힘든 적이 있나요?
그 과정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 교회나 모임 등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수고한 일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다음 사람을 격려하며 내려놓을 수 있나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제가 주인이 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바알브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4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 5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6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7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8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직접 주신 언약

9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피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 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10 너희가 호렙 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12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13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언약, 곧 그분이 너희에게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그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14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3 묵상하기

1-3장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설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전에 그것들을 잘 듣고 지키기를(1-2절), 들은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것을(9-10절) 당부합니다. 사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언뜻 보기에는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답답하게 옴아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떠나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7절)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큼 자유롭고 평안한 삶은 없습니다.

4 적용하기

지구를 돌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이 추락하지 않는 것은 정해진 질서와 궤도 안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만, 가장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는 실천하기 쉬운 말씀은 지키고 어려운 말씀은 모른척하지 않았나요?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말씀은 저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약속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우상을 만들지 말라

15 "여호와께서 호렙 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16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17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18 땅 위에 기어 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 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19 그리고 너희는 눈을 들어 해, 달, 별 등 모든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언약을 잊지 말라

20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21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고 내가 요단 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맹세하셨다. 22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 강을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3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24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 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3 묵상하기

사람들은 뭐든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또 무언가 매력 있어 보이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매력적인 우상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힘이 센 동물이나 통제할 수 없는 자연만물이 우상이 되곤 했지만, 지금은 사람, 돈, 일 등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이 지금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로 녹아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24절).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20절).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세상의 불확실한 약속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붙들기 바랍니다.

4 적용하기

열심히 우상을 깎아 만들어놓고 섬겼던 당시 사람들처럼 나도 나의 허전한 마음, 막연한 미래 등을 스마트폰이나 연예인, 믿을 만한 사람 등 보이는 무언가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고도 내가 의지하고 붙잡던 부질없는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세상의 각종 미신들, 각종 방법들과 성공 이야기들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내 안의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어설픈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주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 눈과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우상 숭배의 결과

25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26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 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27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흠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28 거기서 너희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것들은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데도 말이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29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30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3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잊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3 묵상하기

사람은 편안해지면 간절했던 마음은 금세 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역시 힘겨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 너무도 쉽게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칩니다(29-31절). 사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맹세하고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매번 무너지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즉시 돌이키기 바랍니다. 매번 약속을 어기고 넘어지곤 하는 나지만, 주님은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4 적용하기

이스라엘처럼 나도 힘들고 다급할 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편안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혹시 지금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주님께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편안할 때는 다른 것에 눈 돌리곤 하지 않나요?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버릴 것과 붙들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 로 마칩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라)
- 기도 :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32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대해 물어 보라. 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일에 대해 들어 보았는지 물어 보라. 33 어떤 백성이 너희처럼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34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처럼 시험으로, 표적과 기사로, 전쟁으로, 강한 손과 꺾은 팔로, 크고 놀라운 일로 애를 쓰며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 낸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35 그것을 네게 보여 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36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희를 훈련시키시려고 땅에서는 너희에게 그분의 큰 불을 보이시고 그 불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37 그분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해 그들의 자손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힘으로 친히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 내어 38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오늘처럼 너희를 그들의 땅으로 들여보내 너희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다.

백성이 행할 일들

39 이날 너희는 저 위 하늘과 저 아래 땅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다른 신은 없다. 40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너희 후손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기도' 로 마칩니다.